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수 박순철

# ‘이전의견 다수’ 여수시 낭만포차 설문 결과 발표

### ‘이전해야’ 90.4% 거북선대교 하부공간 찬성



여수시가 낭만포차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이 이전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 낭만포차 이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김기재 건설교통국장이 기자회견을 하며 낭만포차 존치·이전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주)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달 22일부터 이틀간 만19세 이상 여수시민 54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3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2% 포인트다.

가장 관심이 높았던 낭만포차 이전(폐지)·존치 항목은 이전·폐지가 50.9%, 현 위치 존치가 39.8%로 조사됐다. 이전·폐지 응답자 중 이전은 42.2%, 폐지는 8.7%였다.

연령별로는 50대가 69.2%로 가장 높은 이전(폐지) 찬성률을 보였고, 다음은 40대(62%), 30대(54.9%) 순이었다. 20대와 60세 이상은 현 위치 존치 의견이 많았다.

이전 장소로는 50.4%가 현 낭만포차 인근지역, 30.7%가 다른 지역을 꼽았다.

특히 현 위치 인근지역으로 이전 의견을 밝힌 응답자에게 거북선대교 하부 공간 이전 찬반여부를 물은 결과 90.4%가 찬성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은 국동 8.8%, 돌산 3.9%, 소호동 3.9%, 오동도 인근 3.5%, 박람회장 인근 2.2% 순이었다.

설문에 응한 시민들은 도로 혼잡과 주차문제 해결, 위생·안전점검, 기존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음식 맛 개선, 새로운 메뉴 개발, 해양공원의 원래 기능 회복 등 다양한 의견도 제시했다.

앞서 시는 10월 30일 진남문예회관에서 전문가와 시민 등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고 낭만포차 발전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당시 전문가 패널들은 이전과 존치로 나눠 주장을 펼쳤고 시민토론회들 사이에서는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시는 토론회에 이어 설문조사 결과까지 나온 만큼 낭만포차 이전 예산확보에 노력하면서 추가 의견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낭만포차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애정을 알 수 있었다”며 “토론회와 설문조사 의견을 종합해 여수시의회,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송기홍 기자

# 화순군,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착착

### 대기오염측정소 설치완료 ·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등



대기오염측정소는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일산화탄소(CO), 오존(O3), 풍향, 풍속 등 총 10개 항목을 측정하게 된다.

측정된 값은 실시간으로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대기오염측정망 시스템으로 전송돼 에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개돼 주민들이 좀 더 정확한 우리지역의 대기오염도를 알고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지난 8월에는 광주전남에서 선제적으로 화순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미세먼지 피해저감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10월에는 미세먼지 민감계층인 어린이집과 노인생활시설에 약 6,000매의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2,000여 명의 민감계층에 1인당 3매씩 보급했다.

내년에는 입산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1인당 10매의 마스크를 보급하기로 했다.

수송부문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올해 전기자동차 10대 보조금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81대,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지원사업 3대를 지원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또한 군은 전남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 저감조치를 발령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작업시간 단축 ▲도로 진공 흡입 청소차량 운행 확대 등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민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수=박순철 기자

# 영암군, 국민디자인단 우수기관 행안부 장관 표창

### 민·관 합동 재난재해 및 각종 생활안전사고 대응

영암군은 지난달 29일 서울 SETEC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8 국민디자인단 성과공유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 주최로 개최된 국민디자인단 성과공유대회는 국민이 정책 과정에 실제로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 전국 21개(중앙 4개, 지자체 16개) 디자인 과제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30개 기관을 선정하여 우수사례를 시상하였다.

이번 성과대회에서 영암군 국민디자인단은 ‘안전 골든타임, 마을 안전지킴이 OK~’라는 주제로 민·관합동 재난재해 및 생활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한 정책 개선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암군 국민디자인단은 지난 6월 22일 경찰·소방서·행정기관과 대학교수, 언론인, 주민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발족하고, 금정면 청용리, 세류리, 쌍호리 마을 6세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재난재해 및 각종 생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요자 중심 정책을 개발해 왔다.

디자인단은 그동안 현장조사, 인터뷰, 워크숍 등 8차례의 민·관 정책회의를 통해 ▲독거노인과 마을 대표 간 비상벨 설치 ▲주민 간 비상연락망 구축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가정 내 부착 ▲폭염·폭설시 안부살피기 ▲경로당 비상약품 비치 등 주민이 원하는 정책을 찾아 안전문제를 해결하여 지역 주민 참여형 우수 정책 개발 사례로 인정 받았다.

영암=조대호 기자

# 담양군 지명 천년의 역사 기록한 ‘문장 디자인 프로젝트’

생태와 인문학이 어우러진 도시, 담양에서 지명천년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문장이 만들어졌다.

담양군은 담양 지명천년을 맞이한 올해를 기념하기 위해 ‘천년담양’ 문장과 12개 읍면 문장을 개발하는 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군은 지난해 지역이 가진 생태적 환경과 산비탈의 누정문화를 포함한 인문학적 가치를 중점에 두는 담양군의 정책을 토대로 ‘천년담양-생태와 인문학으로 디자인하다’라는 슬로건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문장개발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담양의 각 읍면의 문화와 특징을 담은 대표 문장을 만들어 천년의 역사를 기념

코자 진행하는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각 읍면만의 문장을 개발해 의미를 더했다.

군에서는 실제 디자인에 앞서 각 읍면의 특징과 정체성을 담아내기 위해 읍면별 역사, 문화, 자연 등 특성조사와 함께 5회의 군민 보고회를 통해 읍면의 대표를 만나 주민과 밀접하게 의견을 나눴으며, 천년기념사업 추진위원회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문장을 완성했다.

천년담양을 나타내는 대표 문장에는 인문학의 고장임을 표현하는 책과 정자를 그려 넣고 대나무와 산천초목으로 빼어난 담양군의 자연을 녹여냈다.

읍면 문장은 각 지역이 가진 고유의 특징이 담겼다.

담양읍을 대표하는 자원인 죽녹원과 관방제림, 고려의 문화재인 석당간부터 최근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들어진 담빛예술창고까지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지역의 요소들을 골고루 담았다.

문장을 들여다보면 지역명의 유래부터 이 지역에는 어떤 특산품이 있는지,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어떤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는지 등 담양 마을의 구성구석을 알아볼 수 있다.

즉 이 문장들은 담양의 천년을 기록한 하나의 문화지도가 된다.

담양=박종영 기자

# 무안군,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주산지협의회 회의 개최



무안군은 지난달 29일 무안농협 회의실에서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주산지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2년간 10억원(국비 50%,

군비 40%, 자부담 10%)을 투입하여 주산지 중심으로 농가를 조직화·규모화해 공동경영체 기반을 바탕으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 등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군은 2018년 사업자로 무안농협(양파 품목)이 선정되어 농가조직화 및 교육, 컨설팅, 양파 파종·정식 등 기계화, 양파 큐어링 설비 등을 지원한다.

이날 회의는 정영식 부군수, 고용

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영주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장, 김봉기 농협무안군지부장, 김미남 무안농협장, 홍백용 양파생산자 협의회장, 재배농가, 군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서 무안양파 주산지협의회는 무안양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행정, 농협, 농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활성화하고, 무안양파 발전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영식 부군수는 “앞으로 무안양파 공동경영체 육성과 양파 기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노동력 절감과 가격안정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 친환경 천연 창성찬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찬디**  
장성찬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햇빛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